

역대급 가성비, 기아차 소형 SUV 스토닉을 만나다!

“운전이 너무 편해요” 도심형 소형 SUV 최고 가성비 자랑

국산 소형 SUV 1800만원대 유일 모델
출력 대비 연비는 동급 최강 17.0km/L
VSM 적용...높은 수준 스포츠주행 가능



스토닉은 남녀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디자인을 지녔다. 여기에 국산 소형 SUV 중 차체가 가장 작아 초보 운전자나 여성도 운전하기 편하다. 연비도 출력 대비 동급 차량들 중 가장 높은 등 두드러진 장점이 많다. 여기에 1895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판매 가격까지 갖추고 있다. 현재 국산 소형 SUV들 중 1800만원대는 스토닉이 유일하다. ‘최고의 가성비’라 평가받고 있는 스토닉을 시승해봤다.

●콤팩트한 차체, 편하고 감각적인 운전

시승을 위해 스토닉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이 차가 과연 SUV인가 아니면 해치백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스토닉은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4141mm, 1760mm, 1520mm다. 해치백 모델인 현대차 i30가 4340mm, 1785mm, 1455mm다. 길이와 폭은 비슷하고, 높이는 스토닉이 6.5cm 더 높다. 눈대중으로 해치백과 비교하면 쉽게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차체 크기여서 감성적으로는 해치백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참고로 현대차 코나의 경우 4165mm, 1800mm, 1550mm로 확실히 넉넉한 편이다. 같은 소형 SUV지만 지향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닉의 콤팩트한 차체는 2열과 트렁크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SUV의 기능은 지니면서도 상대적으로 운전은 더 편하고 연비까지 최대한 뽑아내려는 전략적인 디자인이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더 화려한 느낌의 현대차 코나보다는 스토닉이 오히려 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고 느껴진다.

출발을 위해 운전석에 앉아 스티어링 휠을 잡은 감각은 흥미로웠다.

SUV를 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시트 높이가 낮았다. 이 정도면 SUV라면 으레 차체가 높고 운전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여성 운전자들도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듯하다.

D컷 스티어링 휠을 채택했으며, 차체 크기 대비 스티어링 휠 사이즈도 적당히 작아 편하고 감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스토닉의 실연비는 일반 시내 주행에서 16~17km/L 수준, 급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는 스포츠 주행에서는 13~14km/L로 만족할 만하다. 1800만원대 국산 소형 SUV로서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한다.

스토닉 주요 제원	
전장 (mm)	4,140
전폭 (mm)	1,760
전고 (mm)	1,500(15인치 타이어 기준) 1,520(17인치 타이어 기준)
축거 (mm)	2,580
엔진	형식 1.6 E-VGT?디젤 배기량 (cc) 1,582 최고출력 (ps) 110 최대토크 (kgf·m) 30.6
구동방식	2WD
복합연비 (km/L)	17.0(15인치 타이어 기준) 16.7(17인치 타이어 기준)

●높은 연비 매력적, 소음진동은 다소 느껴져

시승모델은 프레스티지(2265만원)에 드라이브 와이즈(80만원)와 선루프 옵션(45만원)이 추가된 풀옵션 모델이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전방충돌 경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등이 포함된 안전 관련 옵션이다.

기본형 디럭스 트림에서도 이 옵션은 선택 가능하다. 기본형에 후방카메라가 포함된 네비게이션과 드라이브 와이즈만 추가하면 어떤 차도 부럽지 않은 안전 옵션이 완성된다. 가장 작고

저렴한 소형 SUV지만 안전과 편의사양은 상위 모델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다.

스토닉의 공인 연비는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 각각 17.0km/L(15인치 타이어 기준), 16.7km/L(17인치 타이어 기준)다. 르노삼성 QM3의 연비가 17.3km/L로 더 높지만 QM3의 최고출력은 90마력인데 반해, 스토닉은 110마력으로 더 높기 때문에 가성비에서는 스토닉이 우위에 있다.

실연비는 일반 시내 주행에서 16~17km/L 수준, 급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는 스포츠 주행에

서는 13~14km/L, 고속도로 정속 주행에서는 22km/L를 상회했다. 충분히 만족할 수준이다.

스토닉이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급제동, 급선회 시 차량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차량자세제어시스템플러스(VSM)’이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에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TVBB)과 코너링 브레이크 컨트롤(CBC)을 적용해 고속 코너링과 급제동 능력이 제법 높은 수준의 스포츠 주행을 소화할 정도로 수준급이다.

파주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볼보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1000억 투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네트워킹 확장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내 시장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1997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다. 볼보자동차는 7월까지 서울 송파, 경

기 안양, 부산 광안, 충남 천안에 신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열고, 하반기에는 서울 동대문과 울산광역시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오픈한다. 연말까지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전년 대비 37.5% 늘려 각각 22개의 공식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는 목표이다. 이와 함께 연내 서울 서초전시장에 포함

한 9개 지점의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의 리노베이션과 확장 이전도 진행한다. 볼보자동차는 7월까지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6.5% 증가한 4136대를 판매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올해 국내 판매 목표도 6300대에서 6500대로 상향 조정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이사(사진)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타 코리아, ‘테이크 유어 시티’ 이벤트

토요타 코리아가 ‘에코’에 ‘힐링’을 더한 색다른 SNS 이벤트 ‘테이크 유어 시티’(Take Your City·사진)를 진행한다. 인스타그램에 ‘#토요타’, ‘#takeyourcity’, ‘#힐링중’ 등 세 가지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만의 힐링 공간을 공유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당첨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프라이빗 힐링 공간의 숙박권, 이벤트 응



모 이미지를 책으로 만든 힐링 노트, 커피 기프티콘 등의 푸짐한 선물이 제공된다. 응모는 25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30일 토요타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이수진 기자

“반려동물은 가족” 첫걸음은 ‘등록’

Q&A로 보는 반려동물 등록제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의무
동물병원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펫팸족(pet+family)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에게 정성을 쏟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반려동물 양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68.3%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같이 생각하는 것에 반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나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서는 아직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40.7%에 이른다.

비용 부담(5.2%)보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33.0%),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16.6%), 의무·제재만 있고 혜택이 없다는 이유(12.6%)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은 되새겨 볼 문제다. 이에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Q&A로 보다 쉽게 짚어본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Q. 반려동물 등록제란?

A.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유기된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다.

Q. 등록제 대상은?

A. 2014년 1월1일부터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이다.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가 부과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없는 읍·면·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Q. 등록신청은 어디서 하나?

A.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신

청된 건에 대한 최종 승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처리가 되며 보통 7일정도 소요된다. 등록방법은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등록인식표 부착 방법 중 선택해 등록한다.

Q. 동물 인식표에는 어떤 내용을 표시하며, 언제 부착하나?

A. 소유자가 인식표를 구매 후, 소유자 이름·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에도 동물을 데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Q.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안전한가?

A. 이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동물용 의료기기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무선식별장치는 등록대행업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종류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로 인해 내장형으로 교체하려면?

A.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

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Q. 등록된 개의 소유자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A.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죽은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직접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물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Q. 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은?

A.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며, 우편 발송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교부하고 있다.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에 직접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도 있다.

Q. 개인이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웠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

A.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데려다 키웠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민·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동물등록을 해야 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를 검색한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뉴스